

## 교회 소식

- “열린 문으로(계 3:7-8)” 우리 마음과 눈의 문이, 삶의 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 안정자 권사님 아들 Kris Ahn 가정에 네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안성현 Caleb. 축하합니다!
- 예결산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위원장: 서영수 장로, 위원: 예배, 교육, 선교, 재정부장.
- 밤 9시 합심기도 기억해주세요. 금요일 밤 8:00 - 9:30 기도 다락방 열려 있습니다. 8:00부터 찬양하고, 8:30부터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부흥과 복음 전파와 나라를 위해 (주보 기도제목).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이영순 권사 (시 25:1-10)
- 친교: 안정자 권사, 김경화 집사
- 11월 안내: 김은영 집사

## 예배 안내

- 주일예배:** 2:00pm, YouTube  
**English Service:** 2:00pm, Zoom  
**토요새벽기도:** 6am, 아몽크 본당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2:00pm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2:00pm, Zoom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939 020 5125/Passcode: Sk (EM/Youth)

##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장효중 **반주자:** 이현주

## 기도

예수님께 활짝 열어 모셔드린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향해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하나님 은총의 징표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빛과 은혜를 받아 등불과 소금이 되도록
- 불의와 탐욕,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나라들을 다스리시도록
- 캄보디아 Paul Lee, 터키 Joshua Kavak, I 국 장이삭, 혼두라스 최문재, 베트남 김승훈,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 WEC 코리아 이정석,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

<2024년 단어>

# 열린 문으로

(요한계시록 3:7-8)



주소: 448 Bedford Road, Armonk, NY 10504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mailto: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http://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2:00pm>                      Presi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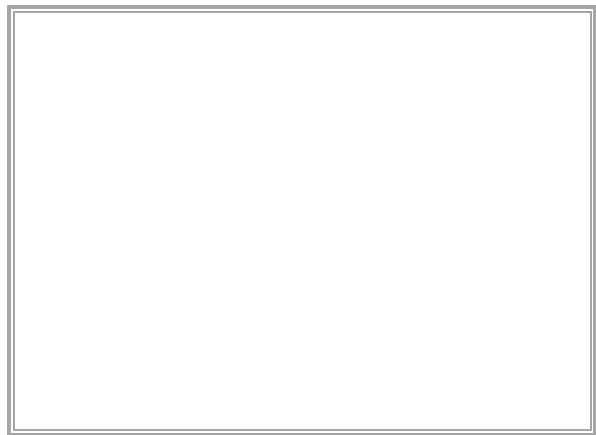
Prayer----- Pastor Edwin

Word of God-----Pastor Edwin

Sermon ----- Pastor Edwin

Reflection Prayer----- Together

Lord's Prayer ----- Together



Memo

추수감사주일 예배 순서

<오후 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위한 기도 ----- 인도자  
Invocation

\*교독문 ----- No. 44 (시편 Psalm 100) -----다함께  
Responsive Reading

\*찬송 -----8(9) “거룩 거룩 거룩”-----다함께  
Hymn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28(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함께  
Hymn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대표기도 -----시편 93 ----- 이승택 집사  
Prayer

추수감사 특별순서----- 주일학교  
Thanksgiving Presentation                      Sunday School

찬양 -----세광찬양대  
Praise                      추수감사절 찬송                      Choir

\*봉헌 -----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Offering

\*성경봉독 ----- 시 50:14-15, 23 -----인도자  
Word of God                      Psalm 50:14-15, 23

설교 -----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민영 목사  
Sermon                      Thanksgiving Glorifies God

인사 및 광고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 “거룩하신 하나님” -----다함께  
Hymn                      Give Thanks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Please stand, if able)

지난 주일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딤후전 5:3-16)

초대교회에서는 과부를 돌보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교회의 조직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행 6 장). (1) 약한 이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4 절; 약 1:27). 그것은 교회 뿐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약한 이를 돌보는 것이 교회 담게, 가정 담게, 사람 담게 합니다.

(2) 돌보는 것은 그가 약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존대”하라는 말은(3 절) 돌보는 것을 넘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심지어는 댓가를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쓸모와 능력과 성취로 사람의 가치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는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받았으므로 모두 소중합니다. 어린아이와 장애인과 늙은 이와 외로운 이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세상 풍조를 거슬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3) 나아가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참 과부는 무슨 좋은 자격이 아닙니다. 그저 외로운 처지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기도하므로 성도를 돕습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과부의 “명부”는 구제 명부를 넘어 제직 명부입니다. 초대교회의 과부들은 직분까지는 아니어도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명부에 올릴 과부의 자격은 거의 장로의 자격과 유사합니다(3 장 참조).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영향력도 큼니다. 세상에 대해 죽지 않으면 향락을 위해 헌신을 저버리거나, 기도의 직분을 게을리 하고 말을 많이 하고 일을 만들어서 자기를 높이지만 결국 정죄 받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습니다.

(4)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모든 헌신자에게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 양을 먹이는 대신 양을 먹어 자기가 살찔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었다면, 장로가 무슨 본이 되었다면, 집사의 헌신이 유익했다면 그것은 모두 자기 욕심이나 세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헌신한 결과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돌보시다.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이것이 교회를 교회 담게 세워줍니다. 무슨 세상의 빛이 되게 합니다.